

2024
고1
10월 학평

2024년 시행 고1 10월 학평 국어 문학 | 박장대 분석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지문 분석

비옹(否翁)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, **패랭이를 쓰고 동달이를 입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.**(인물의 신분을 보여 주는 옷차림-평민) 걸음을 멈추고 **그(무두장이 거복)**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, 갑자기 어떤 객이 이르러 깜짝 놀라 말했다.

“이 사람은 광주(廣州)의 무두장이 거복(巨福)입니다. 그대는 어찌하여 이 사람과 마주 앉아 있습니까?”
그러자 거복이 발끈 노하여 말했다.

“무두장이라도 사람일 뿐입니다. 어찌하여 마주 앉지 못한단 말입니까?”

비옹이 말했다.

“무두장이는 **살생을 업**(무두장이를 어질게 여기지 않는 이유)으로 삼으니, **군자**(비옹으로 대표되는 양반-비판의 대상)가 무두장이를 어질게 여기지 않는다.”

거복이 말했다.(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함. 서술 방식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[“사냥하여 사슴 잡는 것을 호방하게 여기는 것, 낚시질하여 물고기 잡는 것을 고아(高雅)하게 여기는 것, 벼슬하여 사람을 죽여 영예로워지는 것, 도축하여 소를 죽여 배불리 먹는 것, 이 모두 **살생한다는 점**(사대부와 무두장이가 똑같은 이유)은 똑같습니다.”]([: 사대부의 위선적 태도를 지적하는 작가 의식이 드러남.)

비옹이 또한 발끈 노하여 말했다.

“네가 **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?**(군자와 무두장이가 살생한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복의 말에 분노함.) **사냥하고 낚시하고 벼슬하면서 죽이는 것은 모두 자기의 뜻으로 살생하는 것이다. 너는 남의 지시를 받아 도축하여 가축을 괴롭혀서 돈을 구하면서도**(살생하는 태도가 다르므로 사대부와 무두장이의 살생은 다름.) **오히려 비루하지 않다고 여기느냐?**(돈을 목적으로 타의에 의해 살생하므로 무두장이는 비루함.)”

거복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.

“**소인**(자신을 낮추어 표현함. 당대 신분 질서가 드러남. ‘소인’에 반영된 당대 사회 배경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은 어리석고 우둔하니, 벼슬하는 일을 어디에서 들었겠습니까? [소인이 일찍이 재상과 이웃이 되어 재상을 뵈었습니다. 어떤 객(사대부: 아첨꾼)이 왔는데, **재상의 키가 작은데도 그 객은 키가 크다고 말했으며, 재상의 허리가 굽었는데도 그 객은 곧다고 말했습니다.**(아첨함.-어떤 객의 이름이 황지에 적힐 수 있었던 이유) 이 객이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왔는데,

객의 이름이 이미 황지(黃紙)*에 적혀 있었습니다. 한편, **재상의 키가 작은데 다른 객은 키가 작다고 말했고, 재상의 허리가 굽었는데 그 객은 굽었다고 말했습니다.**(직언함.-형벌을 받은 이유) 그 객(사대부: 직언함.)이 가고 난 뒤, 재상은 이전에 왔던 객(사대부: 아첨꾼)을 급히 불러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‘키가 작다’, ‘허리가 굽었다’라고 말했던 객(사대부: 진실함.)은 이미 형벌을 받아 죽었다는 말이 들렸고, 귓속말을 들었던 객이 다시 왔는데 이미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.]([: 동일한 대상인 재상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함으로써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함.) 그러나 **다른 이의 지시를 받는 것도 똑같고, 다른 이를 죽여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.**(재상과 두 객의 사례를 무두장이의 살생과 비교하여 사대부의 위선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함.) 다만 작은 것을 작다 하고 굽은 것을 굽었다고 말한 사람을 가축을 괴롭히는 것에 비견할 수는 없겠으나, **높은 벼슬**(아첨하던 사대부가 구하는 것)과 **많은 재물**(가축을 살생하여 구하는 것)이 **서로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**(갈음.)”

비옹이 **멍해져**(거복의 말에 충격을 받음) 억지로 응답했다.